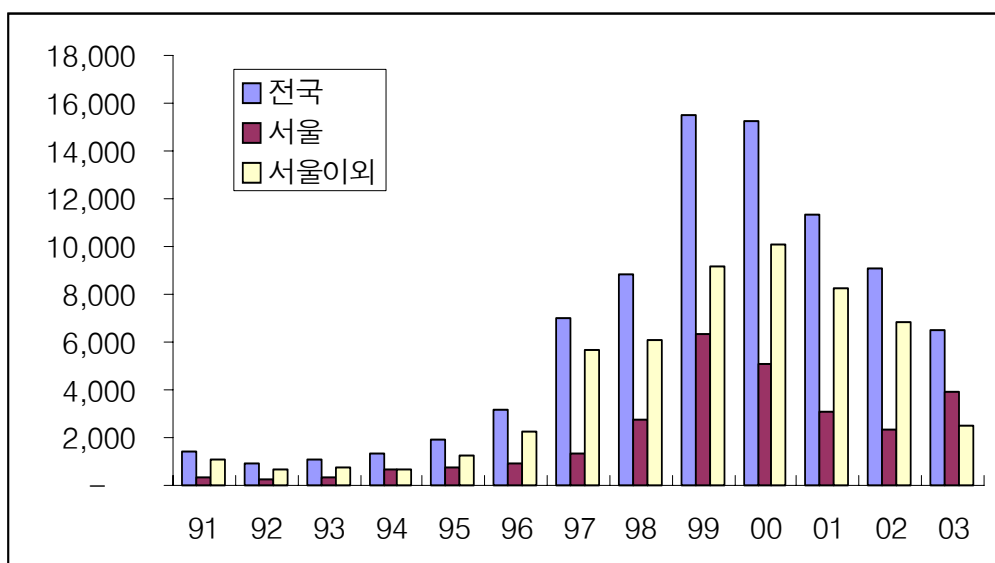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특징과 향후 과제

- 서울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동북아 경제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선진 기술의 이전 통로가 되고 부족한 생산기반과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 2000년 정점을 이루었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2003년에도 여전히 줄었으나 서울에 대해서만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2003년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 증가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전국 외국인 직접투자 2003년에도 감소, 반면 서울은 2003년 증가

-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90년대 후반 외환금융위기의 도래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계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바 있음.
 - 1998년 1,401건, 8,853백만불이던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불과 2년 뒤인 2000년에 4,140건, 15,217백만불로 증가하여 대략 2~3배에 달하는 급성장세를 나타냈음.
 - 그러나 2001년 이후 다시 반전되어 2003년 현재 2,561건에 6,467백만불 수준으로 줄었음.
- 국내 전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던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3년 전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그림 1]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추이 (전국과 비교, 1991~2003, 백만불)

[표 1] 전국 및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투자액	8,853	15,542	15,217	11,292	9,101	6,467
	투자건수	1,401	2,104	4,140	3,340	2,402	2,561
서울	투자액	2,768	6,336	5,109	3,082	2,309	3,933
	투자건수	779	1,238	2,759	1,867	1,375	1,488
비중	투자액	31.3	40.8	33.6	27.3	25.4	60.9
	투자건수	55.6	58.8	66.6	55.9	57.2	58.1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투자건수로 본다면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0년(2,759건)을 정점으로 하여 2002년(1,375건)까지 줄어들다가 2003년(1,488건)으로 증가하였음.
- 투자액의 경우 1999년(6,336백만 불)에 가장 큰 규모를 보인 후 2002년(2,309백만 불)까지 줄어들다가 2003년에 다시 3,933백만 불로 증가하였음.

서울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이 그 원인

○ 2003년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의 원인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투자액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 원래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서울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산업적 기반이 서비스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고 있음.
- 2002년 전체 투자건수의 85%, 투자금액의 77%를 차지하던 서비스업 비중이 2003년에는 각각 87%, 86.6%으로 늘어나는 등 2003년에는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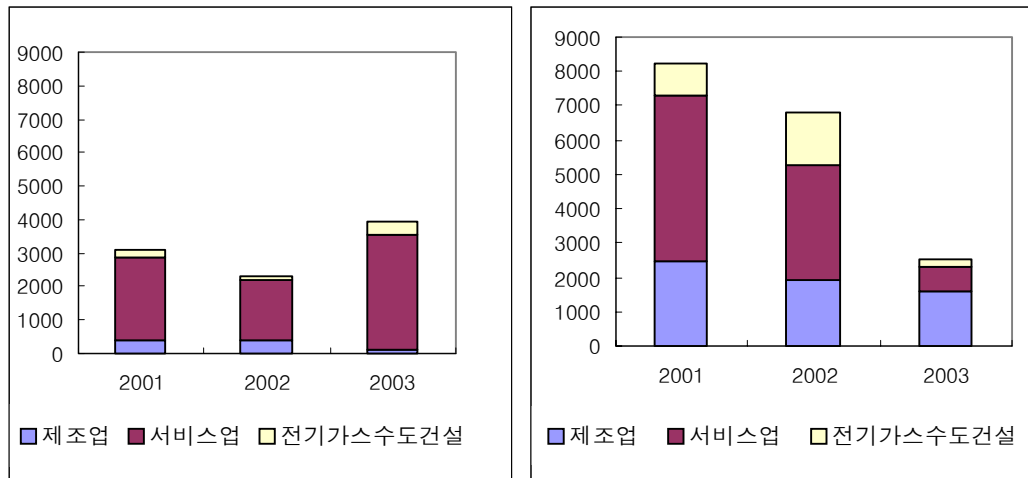
[표 2]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현황(2001~2003)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4	2	3	13	4	11
제 조 업	244	416	182	392	162	131
섬유·직물·의류	22	5	16	9	14	11
화 공	27	210	30	60	20	28
기계및장비	22	55	20	65	18	2
전기·전자	96	82	61	62	66	36
기타제조업	77	64	55	196	44	54
서비스업	1,606	2,458	1,169	1,783	1,294	3,406
도·소매(유통)	892	899	654	254	786	786
음식·숙박	50	8	46	4	49	6
운수·창고(물류)	33	10	36	315	38	80
통 신	28	160	16	73	13	503
금융·보험	173	974	154	830	139	1,643
부동산·임대	30	99	23	50	45	148
비즈니스서비스업	333	250	180	218	181	207
문화·오락	32	48	25	29	13	5
공공·기타서비스	35	10	35	10	30	28
전기가스수도·건설	16	206	21	121	28	385
합 계	1,870	3,082	1,375	2,309	1,488	3,933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금융보험업 대규모 투자 급증 현상

-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원래부터 큰 비중을 차지하던 금융보험업의 급증이 두드러짐.
 - 2002년 830백만불에서 2003년 1,643백만불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 이는 최근 국내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간 흡수·통합 등 구조조정과정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보임.
 - 도소매업과 통신업, 부동산임대 분야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음.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207백만불의 큰 유입액 수준을 보여주었음.
- 2003년 서울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또 다른 특징은 건당 투자액이 2001년과 2002년에 1백5십만불 정도에서 2003년에 2백6십만불로 크게 증가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임.
 - 통신업의 경우 2002년 4백6십만불에서 3억8백 7십만불로 급증하였고 금융보험업의 경우도 5백4십만불에서 1억1백8십만불로 증가하였음.
-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2]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서울이외 지역 외국인직접투자 (백만불)

외국인 직접투자 일본 비중 줄고 EU지역 비중 늘어

○ 국별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의 투자 감소와 EU의 대폭적 투자 증가가 두드러짐.

- 미주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안정적으로 증가해 전체 투자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음(2001년 - 2003년 전체 건수의 25%, 전체 금액의 33% 차지)
- 이에 비해, 2001년-2003년 동안 아주지역으로부터의 투자의 경우(특히 일본의 경우) 건수별로는 55%대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금액으로는 크게 줄어 2001년 31.1%의 비중에서 13.1%로 줄어듬.
- EU지역으로부터의 투자금액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33.3%에서 51.8%로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음.

[표 3]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 국별 현황(2001~2003)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주지역	492	1,038	353	702	344	1,316
미 국	425	927	286	603	282	754
기 타	67	111	67	99	62	562
아주지역	1,055	958	762	739	808	510
일 본	342	310	248	388	250	147
중 국	409	27	214	17	281	29
기 타	304	621	300	334	277	334
EU(15개 국가)	170	1,026	180	587	165	2,038
독 일	29	149	40	187	39	78
영 국	35	279	28	77	39	463
네덜란드	41	239	29	113	17	66
기 타	65	359	83	210	70	1,431
기타지역	153	60	80	281	171	69
합 계	1,870	3,082	1,375	2,309	1,488	3,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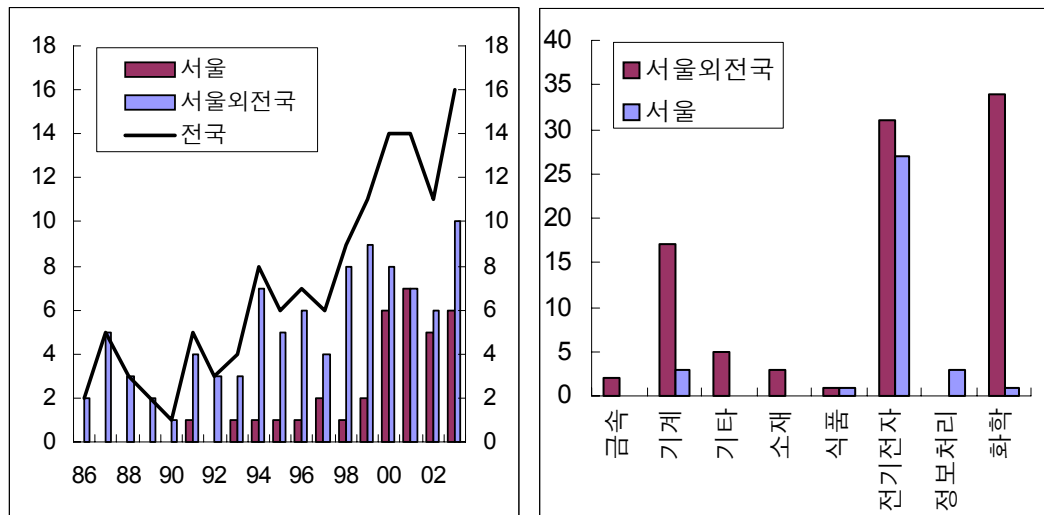
주: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다른 표와는 건수가 상이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에 대한 외국인의 R&D 직접투자 증가 추세

- 외국인 직접투자가 서울경제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R&D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외국인이 100% 출자하는 R&D연구소 설립의 추이를 보면 90년대 전반부터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외국인 R&D 투자가 늘기 시작하였음.
 - 특히 서울의 경우 2000년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한 외국인 R&D연구소 설립 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말 현재 서울에 대해서는 전기전자업에서의 투자가 37개 중 27개로 두드러짐.
 - 서울 이외 지역은 전기전자업이 93중 31개로 역시 많으나 기계분야가

17개, 화학공업분야가 34개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한국산업기술협회

[그림 3] 100% 외국인 출자 R&D연구소 설립 건수와 업종별 설립 건수 (건)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근 특징과 향후 과제

○ 최근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제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며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 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경제가 서비스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금융, 보험업의 급증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서울을 동북아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비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금융인프라를 더욱 개선시켜야 할 것임.

○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아주지역, 특히 기존 투

자국인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반 이상 줄어든 반면 EU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임.

○ 서울에 대한 외국인의 R&D 투자 추이를 살펴볼 때 2000년에 연구소 설립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꾸준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이 기술혁신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아직 전기전자 분야 이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어 향후 생명공학 등 기타 분야에서의 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정세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seeun@sdi.re.kr